

No.20151111-001

제목: 그 때의 교실

저자: 타니하라 쇼코

페이지수: 266

장르: 소설

출간일: 2015년 09월 30일



<내용소개>

**네 개의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과 수수께끼에 마주하고, 이윽고 교실에는 '그 때'가 찾아온다.
작가 특유의 리얼리티로 그린 새로운 학교 미스터리 소설**

이 타이틀은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사건을 교사의 시점으로 그린 단편집이다. 4가지의 단편과, 각각의 단편 사이에 '웨딩 세레머니'라는 작품이 수록 되어있다.

첫 번째 이야기의 교사는 스토키에 시달리다가 도망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학교에 취직한 여교사는 한 사건의 목격자라고 오해 받게 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에게 증언을 부탁한다. 연극 부장 닛시는 왜인지 여교사에게 수상한 기색을 보이며 모른다고만 하고, 일은 꼬여간다. 여교사의 블로그 글을 삽입해서 좀 더 현실감 있는 작품이 되어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묘하게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지도교수를 죽인 교사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죽은 교수가 만든 시험지를 이용하지만, 학생들은 시험이 시작되었는데도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그 시험지 때문에 공들여 만든 알리바이가 무너져버린 교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고등학생의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주인공인 이야기에서는 학년 1등과 꼴지 학생의 취업이 정해지지 않아 곤란한 상태에 있는 도중, 1등 학생이 매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게 된다. 사실은 다른 친구가 만남사이트에서 남자에게 연락 한 것인데, 그녀가 대신 나가서 잡히게 된 것이었다. 이 일로 고군분투 하는 취직담당 교사의 이야기와 친구의 우정을 지켜나가는 학생의 이야기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문제아였던 학생의 졸업이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가에서 시작한다. 재해의 유일한 희생자였던 한 명의 교사는 재해가 있기 전날 문제아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한다'고 전한다. 이 통화로 인해 그 학생은 졸업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죽은 선생님의 컴퓨터 안에서 졸업에 관한 사실이 밝혀 진다. 전편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죽음에 관한 내용으로, 죽은 자가 힌트를 주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야기의 중간중간에 삽입된 '웨딩 세레머니'라는 짧은 이야기에서는 호텔에서 결혼 피로연 준비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중간에 결혼식이 무산 될 뻔 하지만, 마지막엔 무

사히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 된다. 각 단편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 이야기까지 모두 함께 한 권의 책을 완성시킨다.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한 청춘 소설은 많이 있지만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조금은 색다른 테마로 평소에 읽던 소설과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 흥미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한 권이다.

<목차>

1. 웨딩 세레머니 1
2. 뒤는 다른 얼굴
3. 웨딩 세레머니 2
4. 39장의 고발장
5. 웨딩 세레머니 3
6. 그 때
7. 도리기
8. 웨딩 세레머니 4

<저자소개>

타니하라 쇼코

2001 년 “천사가 연 밀실 아르바이트 미나미의 사건부”를 발표하며 데뷔했다.

No.2015111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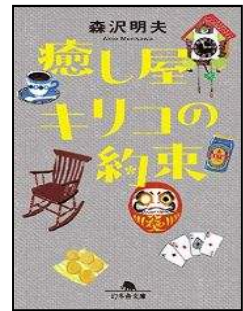
제목: 치유 가게 키리코의 약속

저자: 모리사와 아키오

페이지수: 477

장르: 소설

출간일: 2015년 06월 16일



<내용소개>

고민을 해결해 주는 대신 '봉납'해야 하는 다방인 쇼와당의 주인 키리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 소설의 무대는 도쿄에 있는 다방 '쇼와당'이다. 보기엔 평범한 다방이지만 출입구 부근에 있는 계산대 옆에 신을 모시는 단상이 있고 옆에 돈을 넣는 봉납고가 놓여져 있다. 이 신기한 다방의 주인은 키리코라는 나이를 알 수 없는 여성이다. 요염하고 무뚝뚝하고 둔하지만 돈에 관해서는 억척스럽다. 그럭저럭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힐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여성으로, 갑자기 일이 하기 싫다며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테루미를 점장으로 두고는 자신은 맥주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점장 보다 더 맛있는 홍차와 커피를 만드는 테루미와 카페의 오너이면서도 맛 없는 커피를 내리는 키리코, 이 둘의 가게는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이 가게에는 '치유가게'라는 또 다른 직업이 있다. 그 멤버의 일원인 쿼서비스 라이더인 료는 이야기 중반의 전개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인생에서 고민을 품은 손님들이 가게를 방문하고 키리코는 그 고민을 풀 수 있게 도와준다. 키리코와 테루미, 그리고 다른 유쾌한 동료들이 그 해결에 나서고, 고객은 덕분에 치유를 받게 된다. 치유를 받은 보수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돈을 좋아하는 키리코는 가게 안에 있는 봉헌함에 대금을 잔뜩 '봉헌' 하라고 손님들에게 강하게 요구한다. 카운셀러이기도 했던 주인공 키리코가 각각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의뢰인들을 치유하는 마지막 패는 '단어'이다. 모든 의뢰인이나 가족의 트러블을 포용하는 방법으로 서서히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만, 마지막의 이야기에선 명언을 이야기 함으로써 의뢰인들을 치유해 간다.

모든 이야기에서 모두가 확실하게 치유를 받는 것은 아니어서 너무 완벽하지 않은 주인공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마음의 상처나 슬픔을 조금씩 남겨 두어서 이 책에 등장하는 의뢰인들에게 독자들이 쉽게 공감을 할 수 있어 이야기에 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타이틀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돈에 관해 억척스러운 주인공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 타이틀은 올해 여름 일본에서 낮 드라마로 방영 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자소개>

모리사와 아키오

1969년 치바에서 태어났다. 타카쿠라 켄 주연으로 화제가 된 영화 '당신에게'를 시작으로 요시나가 사유리 주연의 '이상한 곳 이야기'와 '츠가루 백년식당', '라이아의 기도'도 영화화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외의 저서로는 '중요한 것일수록 작은 소리로 속삭여라', '나츠미의 반딧불' 등이 있다.

No.20151111-003

제목: 인공지능에 지지 않는 뇌

저자: 모기 켄이치로

페이지수: 200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5년 08월 27일



<내용소개>

인공지능이 급격히 발전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살아가고, 일을 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비즈니스 실용서

최근 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 분야가 엄청난 성장을 해 인공지능 기술을 장착한 똑똑한 기계들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Google, IBM 등 유력 IT 기업들의 과감한 연구 개발 투자와 신생 기업들의 참신한 기술 아이디어가 접목되면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이고 새롭고 창의적인 적용사례도 다수 생겨나고 있다.

과거에는 사람처럼 어떤 문제에 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은 SF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일이라고 대부분의 저명한 교수들과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뇌 과학에서 밝혀진 뇌가 사물을 인식하는 원리를 알아내면서 인공지능 분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음성인식을 하고 사용자의 말의 의미를 분석해 주는 'Siri', 세계에서 1,000만대 이상 팔린 자동청소로봇, 회원의 취향에 맞춰 상품을 권하는 인터넷 쇼핑 등 현대인의 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편리한 기능이 점점 발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파괴력을 지닌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등이 등장하면서 개인에게는 더 건강하고 스마트한 삶을 그리고 경제사회적으로는 불확실성과 낭비, 재해와 범죄 등 안전 관련 리스크가 최소화 된 세상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보인다. 물론 인공지능의 역할 증대로 인한 일자리 소멸, 개인 프라이버시 제약,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 위협과 같은 부작용의 우려도 상당한 만큼 인공지능의 대한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게 되었다.

컴퓨터 기술이 지금 진행되는 스피드로 계속 발달해 간다면 특정 시점에서 인류의 지능을 넘는 궁극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탄생하는데, 그 시기는 30년 후인 2045년이라고 저자는 이야기 하고 있다. 즉 우리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인공지능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해야 할 타이밍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가 제안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쫓아 올 수 없는 다섯 가지의 스킬, 커뮤니케이션, 신체성, 발상과 아이디어, 직감과 센스, 이노베이션을 갖고 닦아야 앞으로 찾아 올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큰 무기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인

공지능에게 맡기고, 우리 인간은 인간만 할 수 있는 일과 삶을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타이틀은 최신 인공 지능의 개발상태를 함께 이야기 하면서 앞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저자 자신이 실 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읽는 사람에게 있어 보다 설득력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한 권이다. 이 책을 통해 점점 기계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현명하게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시작하며: 인공지능 시대에서 요구되는 '사람답게 일하는 법'

제 1장: 인공지능이 지금 엄청나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있어서 위협? 아니면 같은 편? / 2045년 문제는 정말로 일어날까? 등)

제 2장: 앞으로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의 특징을 알고 인간의 '강함'을 다시 생각하자 / '개인'을 가꾸기 위해 필요한 비판적 사고 등)

제 3장: 인공지능에 지지 않는 스킬을 가꾸어 가자!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 나가는 스킬을 가꾸자 / 인공지능 시대의 SNS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가 / 인간의 강함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꾸자 등)

제 4장: 인공지능에 지지 않는 발상을 가꾸어 가자!

(인공지능적인 발상을 익히자 / 인공지능에 지지 않는 '직감력'을 가꾸자 등)

제 5장: 인공지능에 지지 않는 이노베이션 라이프를 지향하자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이 생겨난다 / '전환 뇌'를 잘 활용하자 등)

마지막으로: 인생은 항상 모차르트 모드로 가자!

<저자소개>

모기 켄이치로

1962년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대학 이학부, 법학부를 졸업 후 도쿄대학 대학원 이과계 연구과 물리학전공 과정을 수료했다. 이학박사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거쳐 소니 컴퓨터 사이언스 연구소 시니어 리서처로 근무했다. 전공은 뇌과학, 인지과학이다. 켈리아(감각을 가진 물질)를 키워드로써 뇌와 마음의 관계를 연구하는 한편 문예평론, 미술평론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2005년 "뇌와 가상"으로 제 4회 코바야시 히데오상을 수상했다. 2009년 "지금 여기에서 모든 장소로"로 제 12회 쿠와바라 다케오 학예상을 수상했다.

No.20151111-004

제목: '선택 받는 사람'의 배려

저자: 사노 아키코

페이지수: 232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5년 08월 27일



<내용소개>

전 일본항공 승무원이 알려주는 회사에서 내 생각대로 평가 받을 수 있고 모두에게 인정 받으며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현대의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목적에 맞는 네트워킹이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빠르고 더 쉽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반면에 인간적인 감성을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장 소중한 원칙과 진리는 사람의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이 세상에서 비호감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교감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즉, 호감을 주지 않는다면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과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감정적인 연결을 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관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열쇠는 고객과 동료, 직원들 간의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강화해 가는 능력에 달려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 지름길만을 찾아 시야를 좁혀서 손 쉬운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하기 마련이다. 모든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은 상대이고 선택 받는 것은 자신이다. 저자는 선택 받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자신(자신의 능력)을 알려주고',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상대의 기대 레벨을 클리어' 해야 한다고 한다. 상대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선택 받을만한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사나 인사부 평가에서 납득 가지 않은 평가를 받았더라면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타이틀은 저자 자신이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접객해 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자신이 없게 되었는가에 대한 매커니즘을 해석하고, 그 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세한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이 책을 통해 매일의 생활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어떤 레벨로 써야 하는지, 어떻게 현실에서 인식해야 하는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후 자신의 인생 그

자체가 긍정적으로 계속 변화해 가는 과정을 즐기며 스스로가 변화해 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변화함으로써 비즈니스에서 선택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선택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제 1장: 자기 자신의 탐구로 - '자기를 아는' 스텝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아는' 것부터 시작 / 자신의 사고, 행동패턴을 이해하자 등)

제 2장: 자기 브랜드의 확립 - '자신의 핵을 만드는' 스텝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How to / 선택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능력 단련', '매력 전달' 등)

제 3장: 자기 프로듀스의 구상 - '자신을 표현하는' 스텝

(최상급을 아는 사람만이 최상급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등)

제 4장: 커뮤니케이션력의 단련 - '마음을 단어로 전하는' 스텝

(신뢰관계가 없으면 말은 영향이 없고, 퍼지지 않는다 / 원활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등)

제 5장: 더 매력 있는 인격으로 - '내면의 아름다움을 빛내는' 스텝

(항상 거짓이 없는 자신, 노력 할 수 있는 자신이 되어라 등)

제 6장: 사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의 발현 - 반드시 선택 받는 사람이 된다

(행복을 불러오는 메신저가 되자 / 행운에게 사랑 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등)

에필로그

<저자소개>

사노 아키코

일본항공 객실 승무원으로써 약 15 년간 국제선에서 근무했다. JAL 아카데미의 강사 겸 트래블 저널 여행 전문학교의 강사를 거쳐, 2002 년 인재육성 연수 회사 '프리스지'를 설립했다. 객실 승무원으로써 10 만명 이상의 접객을 담당해 온 경험과 검도 사범 8 단인 아버지에게서 배운 '인간력'에 의해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있는 '오모테나시(접대)자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호스피탈리티 향상을 테마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체계화 했다. 정부기관부터 대학, 일반기업까지 다양한 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No.20151111-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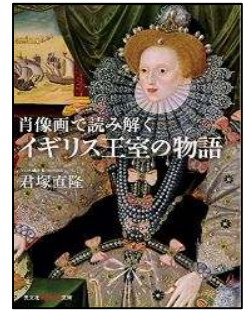
제목: 초상화로 풀어 읽는 영국 왕실 이야기

저자: 키미즈카 나오타카

페이지수: 234

장르: 세계사

출간일: 2015년 08월 06일



<내용소개>

운명에 농락당한 왕실 가족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왕실사람들의 초상화를 통해 알아보자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왕국은 트럼프에 있는 4명의 왕과 영국의 왕 뿐'이라고 할 만큼 영국 왕실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오래 된 왕실이 되었다. 1066년에 노르만 왕조가 형성되고, 앞으로 반세기정도만 더 지나면 1000년을 경과하게 된다. 그 정점에 위치하는 엘리자베스 2세여왕도 벌써 90살에 가까운 고령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현역 군주로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있어서 영향력을 일으키고 있다. 긴 역사를 가진 영국 왕실이지만 항상 안정되었던 것만은 아니다. 7세기에는 국왕의 목이 베어져 왕정이 폐지된 적도 있고, 19세기에 최고 번성기를 만든 빅토리아 여왕조차도 남편이 죽은 뒤 은둔자가 되어 민중들은 '공화정수립'을 외쳤던 적도 있다. 20세기에 있던 두 번의 세계 전쟁으로 영국은 세계대국의 자리에서 미끄러져 경제 불황 등 국민의 생활이 힘들어져 왕실을 향한 비난도 강해졌다. 이 타이틀은 약소국이었던 잉글랜드가 대영제국으로 성장하고, 그 후 쇠퇴기를 맞이하면서도 국제사회를 리드하는 존재가 되기까지의 500년의 역사를 영국 왕실이 배출한 사람들의 초상화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영국역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하고 있다.

<본문 이미지>



しかし、ヘンリーのメッセジはマルガレタには伝わらなかった。ウィーンからは、ヘンリーの「プロポーズ」を断るすげない返事と、この肖像画とが送り返されてきた。さらに、この翌年（一五〇六年）、この頸飾をヘンリーに贈ってくれた当のフィリップがスペインで急死してしまった。イングランドとハプスブルクと結ぶ強力な絆まで、ヘンリーは失った。



金羊毛騎士団章



ガーター勲章



第 3 章

『チャールズ一世、アンリエッタ・マリアと
二人の子ども(チャールズ王子とメアリ王女)』

—アントニー・ヴァン・ダイク
(1639年, 油絵, 王室蔵, 30.0 x 44.0 cm)



タクセン『1887年のヴィクトリア女王の一族』(1887年)

147

146

<목차소개>

서장: 노르만 정복부터 파라 전쟁까지

제 1장: 작자 불명 '헨리 7세'

제 2장: 마르크스 '여왕 엘리자베스 7세'

제 3장: 안토니 반다이크 '찰스 1세, 앙리에타 마리아와 두 자녀'

제 4장: 안토니오 다비드 '찰스 에드워드 스튜어트 왕자'

제 5장: 앨런 램지 '국왕 조지 3세'

제 6장: 루크 클레넬 '1813년 6월 18일의 만찬회'

제 7장: 데이비드 윌키 '빅토리아 여왕의 최초 추밀 고문회의'

제 8장: 에드윈 랜시아 '오스본의 빅토리아 여왕'

제 9장: 루크 필즈 '국왕 에드워드 7세'

제 10장: 존 라베리 '버킹엄 궁전의 국왕 일가(1913년)'

제 11장: 제임스 건 '원저 로열 롯지에서의 환담'

제 12장: 앤드류 페스팅 '여왕과 에딘버러공의 금혼식'

칼럼 1.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칼럼 2. 영국왕실과 '국제결혼'

<저자소개>

키미즈카 나오타카

1967 년 도쿄에서 태어나 릿쿄대학 문학부를 졸업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 세인트 안토니 컬리지에 유학을 했다. 조치대학 대학원 문학 연구과 사학 전공 박사 후기 과정을 수료하고 사학 박사가 되었다. 도쿄대학 객원 조교수, 카나가와현립 외국어 단기 대학 교수 등을 거쳐 관동학원대학 국제문화학부의 교수로 있다. 전공은 영국 정치외교사, 유럽 국제 정치사이다.

No.20151111-006

제목: 안과 의사가 알려주는 '뇌'로 치료하는 우리 아이의 근시

저자: 혼베 카즈히로

페이지수: 159

장르: 육아/건강

출간일: 2015년 10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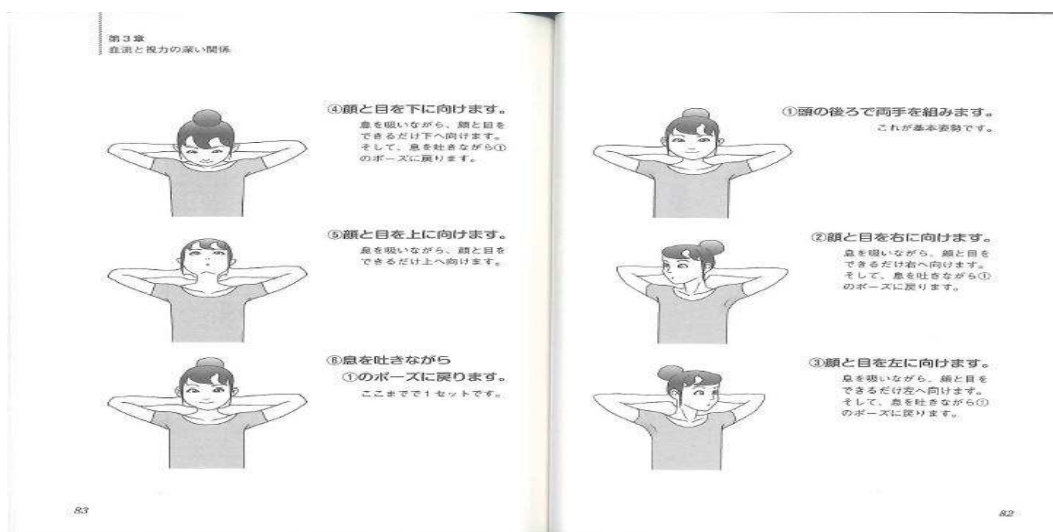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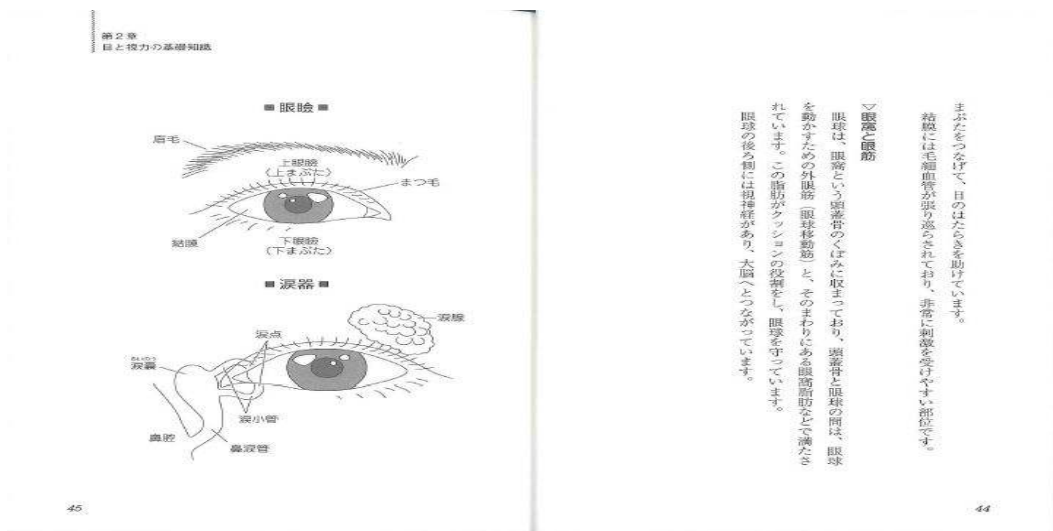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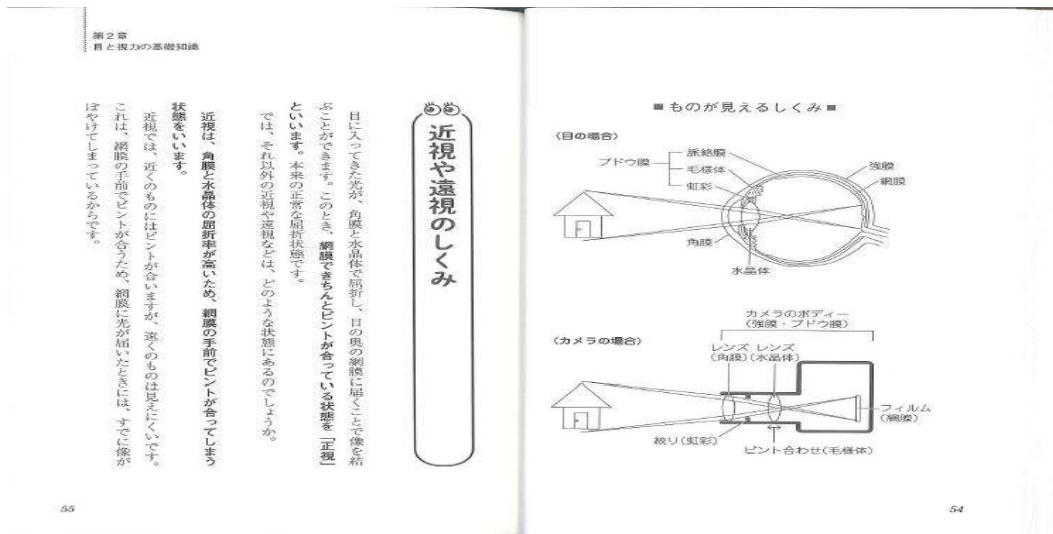
<내용소개>

뇌 트레이닝을 통해 아이의 근시를 고칠 수 있게 도와주는 타이틀

최근 해마다 어린 아이들의 시력저하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옛날에는 안경을 쓴 아이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안경 착용이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도 30%정도는 안경 착용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의 시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는 어렸을 때부터 눈을 혹사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원래 활동적인 존재여서 밖에서 뛰어 놀며 커야 하는데, 최근에는 야외에서 노는 환경 보다는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을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TV나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다. 좁은 실내에서 이런 IT 생활을 하다 보면 가까운 거리에서 늘 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력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조기 교육때문에 늘 책을 보는 환경도 시력을 해치게 된다. 활자 크기가 작은 학습만화나 많은 독서량, 각종 학원에서 책을 보는 환경이 시력을 저하시킨다. 또, 사물을 가까이서 보는 환경이나 습관이 지속되면 모양 체근 긴장으로 수정체 조절력이 떨어지게 되고, 안구를 움직이는 6가지의 근육 이동근들과 홍채근이 위축되어 소아 시력저하가 발생한다고 한다. 어른들이 피곤할 때, 눈 마사지나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운동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하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안구 근육운동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아 시력저하에 대한 대책을 풀어 낸 것이 이 타이틀이다. 오랜 기간 안과 의사를 해 온 저자는 근시를 하나의 '병'으로 생각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뇌'이며, 근시는 '뇌가 똑똑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주장한다. 가까운 곳을 보는 눈은 수축하지만 그 것이 장시간 계속 되면 똑똑한 뇌는 그 불쾌한 정보를 회피해버린다. '가까운 곳만 보고 있으니까 가까운 곳이 잘 보이게 해줘야지' 하는 지령을 내리고 근시를 진행시킨다는 것이다. 즉, 근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뇌에 가까운 곳 만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해 뇌의 기능을 발달 시키는 트레이닝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먼저 눈의 구조를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스트레칭과 뇌를 발달시키는 퀴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눈이 좋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가 읽고 아이와 함께 근시를 예방, 개선 시키기에 좋은 한 권이다.

< 본문 이미지 >



<목차소개>

- 제 1장: 시력 저하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 제 2장: 눈과 시력의 기초지식
- 제 3장: 혈류와 시력의 깊은 관계
- 제 4장: 아이의 시력을 지키는 트레이닝
- 제 5장: 생활 습관을 고쳐서 시력을 회복하자

<저자소개>

혼베 카즈히로

안과 의사, 내과 의사이다. 혼베 안과 의원 원장이다. 일본 홀리스틱 의학 협회의 고문이기도 하다. 1985 년 국립 기후 대학 의학부를 졸업, 내과 의사로서 근무를 한 후 1989 년 기후 대학 의학부 안과 학과 교실에 입국했다. 2005 년 4 월 나고야 시에 '혼베 안과 의원'을 개업했다.

No.20151111-007

제목: 왜 엘리트 사원이 리더가 되면 이노베이션은 실패하는가

저자: 이노우에 코우

페이지수: 224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5년 09월 11일



<내용소개>

많은 사내 이노베이터와 마주해 온 컨설턴트인 저자가 알려주는 평범한 회사원이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기 위한 4가지 조건

회사 내외의 리소스를 유연하게 관계시킴으로써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앞으로의 기업의 전략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 간의 장벽을 넘은 콜라보레이션이나 기업과 개인의 협업, 직원 이외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콘테스트 등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이전에 없던 아이디어가 만들어 지곤 한다. 하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을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고,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성공 사례도 많지는 않다.

해외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사업으로 전개되어 오픈 이노베이션을 잘 활용한 경우도 있다. 외부와 힘을 합해 결국 기업이 성공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나날이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만을 하는 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듯,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기업도 변화를 계속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원진들은 그런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는 주어진 일을 묵묵히 잘해서 성과를 내 승진을 한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현재 임원진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타이틀에서는 이노베이션을 '경제 성과를 가져오는 혁신'이라고 정의하고, 경제 성과는 이노베이션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노베이션이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것이고 보다 좋은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이노베이션이란 '보다 좋은 변화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바깥 환경의 변화에 대처해 가기 위해서는 모든 회사원에게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많은 실례를 들어 주력 사업을 가진 일본 기업이 사내에서 일본판 스티브 잡스라고도 불릴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이노베이션을 성공의 길로 이끄는 프레임 워크를 소개한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일본의 대기업들의 성공 사례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을 한 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매일의 일에 쫓겨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책은 이노베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포인트와 노하우를 익히기에 매우 좋을 권이다.

<목차소개>

서장: 대인관계가 좋은 '엘리트'가 아니라 무례한 '이노베이터'가 펼쳐는 미래

제 1장: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엘리트 사원'이 아니다.

제 2장: '스스로 변화를 쫓아가는 부하'의 상사가 되려면?

제 3장: 과감한 도전자를 낳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 4장: 기존 사업에 너무 의지하지 않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자소개>

이노우에 코우

주식회사 리쿠르트 매니지먼트 솔루션 이그제티브 플래너이다. 1986 년 리쿠르트에 입사했다. 채용, 인재개발 영역에서의 솔루션 실적이 다수 있다. 1997 년, 1998 년에 모든 회사 매니저 MVP 를 수상했다. 2002 년부터 HC 솔루션부에서 사람과 조직에 관한 경영 과제의 해결에 종사했다. 2012 년부터 지금의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미래의 테마는 이노베이션 창출이고 이노베이션, 마케팅, 기업 변혁, 브랜딩 등의 분야에서 국제 기독교대학을 시작으로 한 교육기관, 국토교통부등의 중앙청사, 지방자치체, 기업 등에서 강연실적도 많이 갖고 있다.

No.20151111-008

제목: 돈 때문에 힘들지 않은 삶의 방식

저자: 코코로야 진노스케

페이지수: 201

장르: 인생론

출간일: 2015년 03월 18일



<내용소개>

열심히 하는 것을 그만두면 점점 돈이 들어온다.

TV에서도 화제를 불러 모으는 인기 카운셀러가 전하는 즐기면서 풍요롭게 사는 방법.

복잡 다난해진 이 사회에서 돈은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이자 인생 목표의 제 1순위가 되어버렸다. 잘 벌어서 풍요롭고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가치관이 된 것 같고 사람들의 머릿속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타이틀의 TV방송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자신의 생활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제적 수준보다 훨씬 더 높고 좋은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돈벌이를 하고 어떻게든 그 꿈에 맞춰가려고 한다. 그 것이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마음 속에서는 짜증이 꿈틀대고 관계에 있어서도 경쟁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여유가 없어 빠듯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인지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어떤 사명감을 갖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이 될 일이라면 무엇이든 상관 없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결국 풍요로운 삶을 살기는 힘들 것이다.

저자는 카운셀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로 '돈에 관한 문제, 고민'을 꼽았다. 즉,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원한다는 것이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책 중에는 '부자가 되는 법' 등 돈에 관한 책이 많이 출판 되고 있다. 하지만 부자에 관한 책을 읽어도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저자는 부자가 되는 방법만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자가 되는 방법 보다는 부자로 있는 법을 바꿔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부자로 있는 법이란 물건의 '전제(생각하는 법의 기초)'를 바꾸는 것이다. 인간은 항상 마음 어딘가에 전제를 두는 버릇이 있다. 모든 것을 금방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빠듯게 생각하거나 너무 열심히 몰두하거나 항상 자신을 자책하거나 하는 버릇이 있다. 이런 버릇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살기 힘들고 돈에 궁한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그런 자신의 버릇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살기 쉬워지고, 돈이 들어오는 삶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의 상담의 경험을 토

대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한 권이다.

<목차소개>

제 1장: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돈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은 다가오지 않는다 등)

제 2장: 애당초 ‘돈’이란 무엇일까?

(수입은 스스로 인정하는 자신의 가치에 비례한다 / 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등)

제 3장: 왜 돈이 안 들어올까?

(그것은 당신이 받지 않았으니까 / 열심히 하니까 풍요롭지 못한다 등)

제 4장: 돈이 들어오는 ‘방법’은 무엇인가

(돈은 공기와 같다.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절약하면 할수록 돈은 준다 등)

제 5장: 돈이 들어오게 되는 습관

(‘부자 놀이’를 한다 / ‘돈을 쓰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부터 빨리 내버리자 등)

<저자소개>

코코로야 진노스케

‘성격 리폼’ 심리 카운셀러이다. 대기업의 관리직에서 일을 했지만 현재는 교토를 거점으로 한 전국 각지에서 세미나 활동과 카운셀링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No.20151111-009

제목: 정말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저자: 야스이 스에코(글), 쿠로이 켄(그림)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4년 0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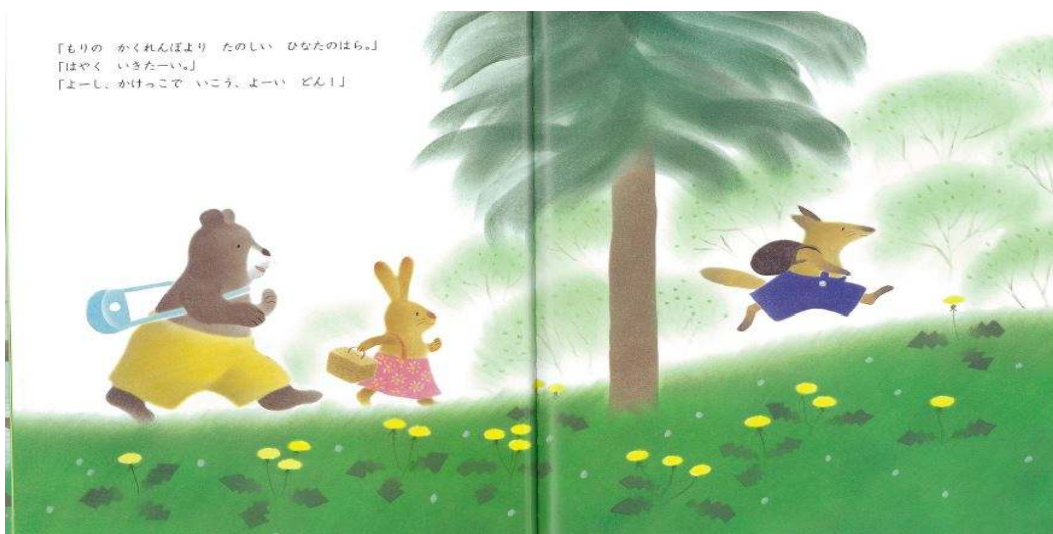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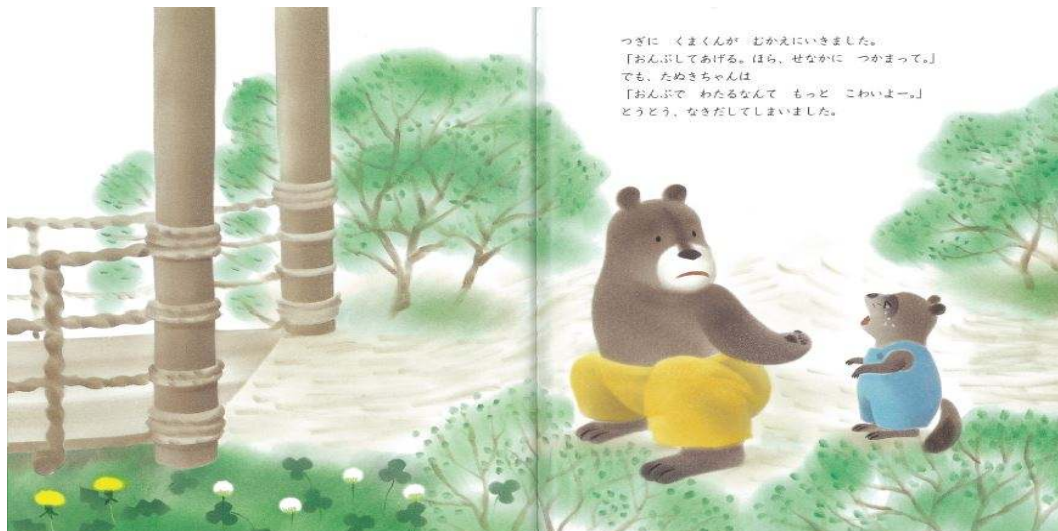
<내용소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담은 이야기의 그림책입니다.

곰과 여우, 토끼가 함께 들판으로 놀러 갑니다. 들판에서는 뒹굴기도 할 수 있고 민들레 목걸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 함께 피크닉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들판은 큰 흔들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흔들 다리를 건너서 도착한 들판에서 셋은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 때, 흔들 다리 건너편에 너구리가 손을 흔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셋은 너구리에게 함께 놀자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너구리는 흔들 다리가 무서워서 건너지 못합니다. 셋은 들판이 재미있다는 것을 너구리에게 보여주지만, 너구리는 역시 흔들 다리가 무서워서 들판으로 오지 못합니다. 토끼와 여우가 건너편으로 가서 너구리를 데려오려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너구리는 무섭습니다. 곰도 업고 건너겠다고 하지만 너구리는 무서워서 울어버립니다. 셋은 함께 고민을 하다가 자신들도 더 어렸을 적 무서워서 건너지 못한 것을 기억해내고 그 때 흔들 다리 건너편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일, 건너편으로 와서 함께 놀아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넷은 들판에는 못 갔지만 누구보다 즐겁게 놀게 되었습니다.

<본문이미지>





<저자소개>

야스이 스에코

도쿄에서 태어났다. "가타 탄탄"으로 제 12 회 그림책 일본상을 수상했다.

쿠로이 켄

니이가타에서 태어났다. 산리오 미술상, "또 한번 트래블"로 빨간 새 삽화상을 수상했다.

No.20151111-010

제목: 하늘이 떨어져요

저자: 훈나 쿠마리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5년 06월 01일



<내용소개>

자 타카 이야기를 기원으로 하는 스리랑카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토끼가 나무 밑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쿵!! 하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토끼는 하늘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 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토끼가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본 숲 속의 동물들은 큰일 났다고 토끼의 뒤를 쫓아 갑니다. 거북이도, 사슴, 코끼리, 기린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자는 영문을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하늘이 떨어지는 건지 궁금해진 사자왕은 모두를 데리고 토끼가 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야자수에 도착한 일행은 떨어져있는 야자열매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자 왕은 그 열매를 가리키며 저것이 하늘인가? 하고 묻습니다. 영문을 알게 된 동물들은 토끼의 실수에 크게 웃고 맙니다. 그 후 토끼는 창피해서 굴에 숨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그림체로 그려진 이 그림책은 스리랑카 불교 설화 '자 타카 이야기'에 수록되어있는 이야기 중 하나로 쿠마리가 다시 그려 넣은 책 입니다. 참고로 자 타카 이야기는' 부처가 세상에 오기 전인 전 세상의 이야기를 모은 불교 설화입니다.

<본문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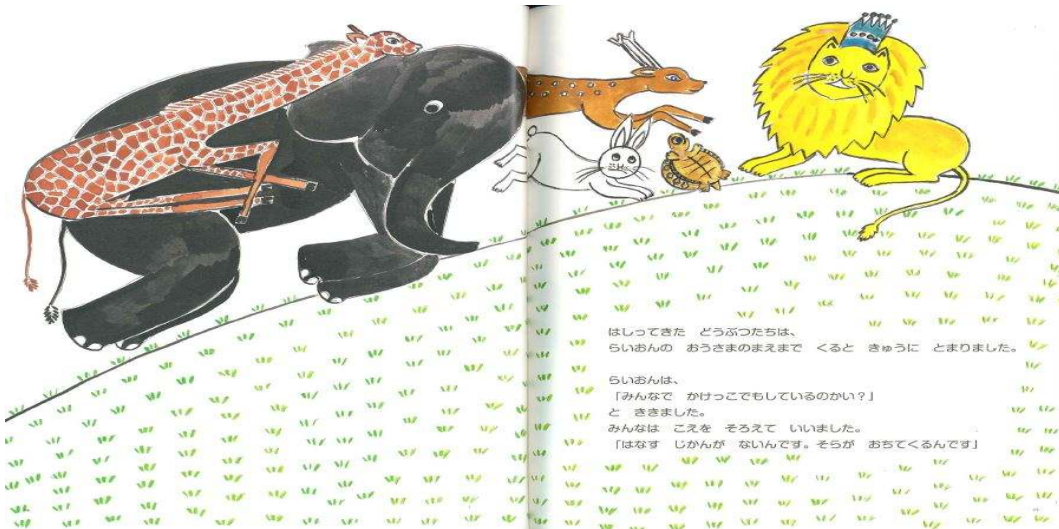




「ほんと？ こわい こわい。
わたしも いっしょに つれていってよ」
ぞうも みんなと いっしょに はしりだし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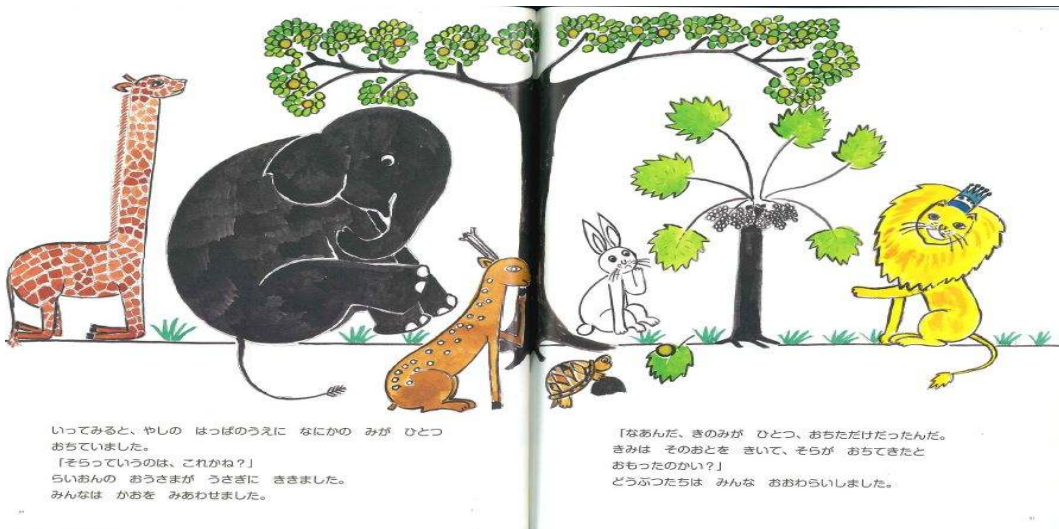
びよん びよん びよん
たつとこ たつとこ たつとこ
どすん どすん どすん

かめを おんぶしている うさぎは だいふ つかれてきました。
けれども はしりつづけます。



はしってきた どうぶつたちは、
らいおんの おうさまのまえまで くと きゅうに とまりました。

らいおんは、
「みなで かけこでもしているのかい？」
と ききました。
みんなは こえを そろえて いいました。
「はなす じかんが ないんです。そらが おちてくるんです」



いってみると、やしの はっぱのうえに なにかの みが ひとつ
おちていました。
「そらっていうのは、これがね？」
らいおんの おうさまが うさぎに ききました。
みんなは かおを みあわせました。

「なあんだ、きのみが ひとつ、おちただけだったんだ。
きみは そのおとを きいて、そらが おちてきたと
おもったのかい？」
どうぶつたちは みんな おおわいました。

<저자소개>

푼냐 쿠마리